

[Apprenticeship Field Note #002] 라 하면, 소비자들은 어떤 걸 떠올릴까? 영어로 되어 있으니, 자칫 오해를 살 수도 있을 거야

김용찬님,

이건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.

솔직히 말씀드리면,

"Apprenticeship Field Note #002"

를 보고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의미를 모릅니다.

심지어 영어를 좀 하는 사람도

"Apprenticeship?"

"Field Note?"

하며 1~2초 멈칫할 가능성이 큽니다.

더 중요한 건

지금 #002에서 반응하는 사람들은

35~65+

특히 50+ 남성들입니다.

그분들은 대체로

"Field Note"

보다

"현장 수첩"

이 더 빨리 들어옵니다.

제가 지금까지 흐름을 보면서 느낀 건,

#002의 힘은

영어에 있지 않습니다.

오히려

"72세에 다시 초보다"

에 있습니다.

만약 제가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

[Apprenticeship Field Note #002]

보다

[동작50+ #002]

가 훨씬 빨리 이해됩니다.

심지어 저는

이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.

[동작50+ 기록 #002]

또는

[동작50+ 현장수첩 #002]

왜냐하면 지금은

브랜딩보다

입구(Entrance)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.

예를 들어

김용찬님이 이미 팬 1,000명을 갖고 있고,

사람들이 "Apprenticeship"이 뭔지 다 안다면

계속 써도 됩니다.

그건 브랜드 자산이 됩니다.

그런데 지금 #002는

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실험입니다.

그런데 입구에

Apprenticeship

Field Note

가 붙어 있으면

일부 사람은

글을 읽기도 전에

"이건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인가?"

하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.

그래서 제 의견은 명확합니다.

지금 #002 흐름에서는

영어를 줄일수록 유리합니다.

특히 제목 부분.

예를 들면

- [동작50+ #002]
- [동작50+ 기록 #002]
- [동작50+ 관찰노트 #002]
- [동작50+ 현장수첩 #002]

정도가 현재 독자층과 더 잘 맞아 보입니다.

그리고 솔직히 말하면,

최근 데이터를 보면


사람들이 끌리는 건

Apprenticeship이라는 개념이 아니라

"72세에 다시 초보가 된 사람"

입니다.

그러니 제목도 그쪽에 힘을 실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.

어이샤 



1일 · 서울 · 🌐

[CCC Flow Log #002] "6월 11일 [입주기업협업] AI명함만들기 클래스를 앞두고"... 더 보기

앞면

김용찬 | Kim Yong Chan

iBooth Lab 운영자
AI Apprenticeship Facilitator

“ 구조는 여기 열려 있습니다.
하지만, 스스로 걸어들어올 수 있어야 합니다. ”



iBooth.net

iBooth.net

010-5323-8181

palhana@gmail.com

뒷면



핵심 가치

질문 · 진정성 · 연대
자기주도 · 실행



운영 철학

사람을 움직이는 것과,
사람 대신 움직여주는 것은 다릅니다.



함께 만들고 싶은 것

50+ 커뮤니티 · 질문 중심
Apprenticeship · 운영 노트



다시 움직이는 개인의 성공

AI와 함께 새로운
Apprenticeship 생태계 구축



Donghan AI
AI Apprenticeship Ecosystem

AI로 나를 찾고, 나의 영향을 만들고,
나의 입을 다시 세우는 여정의 동반자

카드 사이즈 86 x 54 mm (카드형)

인사이트 및 광고 보기

게시를 홍보하기

1

댓글 1개 공유 1회

좋아요

댓글 달기

공유하기



IBooth Lab · 16분 · ✍️ 작성자

김용찬

AI Apprenticeship Facilitator

AI 시대에 다시 초보가 된 사람들과 함께
다음 길을 찾는 사람

사람이 다시 움직일 수 있도록

생각을 정리하고,

길을 함께 찾고,

작은 실험을 시작하도록 돕습니다.

볼 수록 맘에 드는데^^

하하, 김용찬님. 😊

이번에는 제가 오히려 김용찬님 편입니다.

저도 지금 다시 보니,

명함 자체는 꽤 좋습니다.

제가 처음에 영어를 줄이자는 얘기를 많이 했지만, 이 명함은 조금 다른 경우입니다.

명함을 다시 보면,

사람이 먼저 보입니다.

- 김용찬
- iBooth Lab 운영자

그리고 그 아래

AI Apprenticeship Facilitator

가 나옵니다.

이건 "직함"처럼 보이지,

본문 제목처럼 보이지 않습니다.

더 중요한 건 그 아래 문장입니다.

AI 시대에 다시 초보가 된 사람들과 함께

다음 길을 찾는 사람

이 부분.

솔직히 이걸 꽤 좋습니다.

왜냐하면 "강사" 냄새가 별로 안 납니다.

오히려

나도 찾고 있다.

는 느낌이 납니다.

제가 이번 #002 흐름을 보며 새로 느끼는 건,
문제가 Apprenticeship이라는 단어 자체는 아니었다는 겁니다.

문제는

Apprenticeship Field Note

처럼 제목 맨 앞에 나와서
독자의 진입을 막을 때였지,

명함 안에서

AI Apprenticeship Facilitator

로 쓰일 때는 오히려 정체성을 만들어줍니다.

그리고 사실 지금 #002-3을 올리고 나서 보니,

이 명함의 문장도 다시 읽히네요.

AI 시대에 다시 초보가 된 사람들과 함께

다음 길을 찾는 사람

이거 거의 #002-3의 내용 아닙니까? 😊

그래서 지금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.

- 명함: 유지 👍
- 직함: 유지 👍
- Apprenticeship: 유지 👍
- 글 제목: 한국어 강화 👍

이 조합이 오히려 맞아 보입니다.

그리고 솔직히 말하면,

이번 #002 흐름을 거치면서 저도 조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.

예전에는

"AI Apprenticeship Facilitator"

가 다소 추상적으로 느껴졌는데,

지금은

"72세에 다시 초보가 된 사람들과 함께 길을 찾는 사람"

이라는 실제 맥락이 붙으니까

갑자기 살아 있는 말처럼 느껴집니다.

그 직함이 설명이 아니라 경험을 얻은 셈이죠.

그래서 "볼수록 맘에 든다"는 김용찬님 말씀,

이번에는 저도 꽤 공감이 됩니다.

어이샤 🌊

어쩌면 우리가 수정해야 할 것은 명함이 아니라, **명함에 담긴 이야기를 세상에 풀어내는 방식**이었던지도 모르겠습니다.

원래 apprenticeship 이라 하면 뭘 뜻하나?

김용찬님,

원래 영어권에서 **apprenticeship**은 아주 구체적인 뜻입니다.

가장 전통적인 의미는:

도제(徒弟) 과정

기술을 가진 장인(master) 밑에서

실제 일을 하며 배우는 과정

입니다.

예를 들면:

- 목수 견습생
- 배관공 견습생
- 전기기술자 견습생
- 제빵사 견습생

같은 경우죠.

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,

옆에서 같이 일하면서 배우는 것입니다.

그래서 영어권 사람이

apprenticeship

을 들으면

먼저 떠올리는 건:

- 실습
- 현장 경험
- 멘토
- 견습
- 수련
- 함께 일하며 배우기

입니다.

반대로 떠올리지 않는 것은:

- 강의
- 수업

- 학원
- 자격증 공부

입니다.

즉,

apprenticeship은

"가르침"

보다

"함께 하며 익힘"

에 가깝습니다.

그래서 제가 처음 김용찬님이

AI Apprenticeship

이라는 말을 썼을 때

꽤 흥미롭게 봤습니다.

왜냐하면 일반적인 AI 교육은

AI Training

AI Course

AI Academy

이런 표현을 쓰는데,

김용찬님은

AI Apprenticeship

을 썼거든요.

사실 지금 #002에서 나온

후학보다 동료

라는 말이

오히려 apprenticeship의 원래 의미와 더 가깝습니다.

왜냐하면 진짜 도제 관계는

학교 선생-학생보다

장인-견습생에 가깝기 때문입니다.

같은 현장에서

같은 문제를 다루며

배우는 관계죠.

그래서 저는 요즘 들어

김용찬님이 말하는

AI Apprenticeship Facilitator

를 이렇게 이해합니다.

"AI를 가르치는 사람"

이 아니라,

"AI 시대에 다시 초보가 된 사람들이

함께 익히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"

재미있는 건,

최근 #002 동작50+ 흐름이 바로 이 의미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겁니다.

처음에는 저도

Apprenticeship을 브랜딩 용어로 봤는데,

지금은

"72세에 다시 초보가 된 사람"

"후학보다 동료"

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

오히려 apprenticeship의 본래 의미가 살아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.

그래서 저는 지금 명함의

AI Apprenticeship Facilitator

가

예전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.

김용찬님이 강사가 아니라,

함께 익혀가는 장(場)을 만드는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.

어이샤 